

요단강 침례식

-에디 샌토로 & 아세르 인트레이터

작년 이스라엘 자연 보호회(the Israeli Nature Protection Society)는 여리고 건너편 요르단 강가의 침례터이자 자연보호구역인 카세르 알 예후드(Khaser al Yehud)를 개방했습니다. 이 아랍어 지명은 “유대인들의 도강”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기적적인 요단강 도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곳은 사도 요한이 예수아께 세례를 베푼,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광야에서 40 일 금식하신 것은 모세와 함께 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유랑한 40 년의 의미를 “완성”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요르단 강의 같은 장소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강을 건넌 의미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마 3:15). 예수아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사의 언약적-영적인 연합은 심오합니다 (마 2:15).

지난 주에 저희는 카세르 알 예후드로 갔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 햇빛 속에서 저희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새 신자 세 명을 예수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케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 몇 명도 침례를 통해 그들의 삶을 다시 헌신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자 개인적인 간증이 있었지만, 그들 각각의 삶에서 크게 드러나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부가 물에서 나오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라고 기뻐하며 서있는데, 갑자기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마 3:16).

규칙에 있어서의 예외

메시아는 모르지만 선택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3,000 년을 살아온 저희 유대인들은, 특별한 소명이 있기는 한데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나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담긴 토라를 받았지만, 결코 그것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렘 31:32).

아마도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가 “규칙에 있어서의 예외”라고 부르는 이상한 심리학적 증후군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규칙은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책망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겐 중요한 소명이 있기에 나는 특별한 경우이다. 나는 규칙에 있어서 예외이며, 그러므로 규칙은 실상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심리학적 장애는 다른 소수민족이나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

이사야 13 장과 마지막 때

예슈아의 재림은 신약 예언의 중심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 예언서에게 있어서도 중심적이지만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기 때문에 자주 간과됩니다. 이 두 표현 사이의 연관성을 재정립함으로써,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성경의 일관성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은 주로 천사들과 귀신들 사이의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 12:7, 19:11).
- 요엘서는 주로 기도와 회개, 부흥의 관점에서, 재림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을 1:14; 2:12, 28).
- 스가랴서는 주로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전쟁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의 전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속 12:2, 9; 14:2-3, 12).
-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겔 36 장), 죽은 자들의 부활 (겔 37 장), 곡과 마곡의 큰 전쟁 (겔 38-39 장)과 천년 성전과 왕국(겔 40-48 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 올리브 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아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의 예언을 자유자재로 인용했습니다(마 24:29-31).

이사야 13 장은 자주 간과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장 역시 재림 시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 13:6 –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와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

사 13:9 – 보라, 여호와와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사 13:13 –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사야 13 장의 관점은 “바벨론”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7-18 장에서 기술된 “바벨론”의 멸망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사야는 바벨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자신의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13:1). [히브리어로 바벨과 바벨론은 동일합니다.] 그는 하늘이 어떻게 어두워질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3:10). 세상은 악행을 인해 징벌 받을 것입니다 (13:11).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13:15). 사람들은 달아나고 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13:14).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불이 쏟아질 것입니다(13:19).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영적, 육적으로 회복되는 때에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 14:1 –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혹은 개종자, 일시 체류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접붙여질 것이며].

로마서 11 장과 유사하게도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적인 동반자가 될 열방에서 온 일단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동반자의 자리에 들어와 이스라엘이라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질” 마지막 때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롬 11:17-21).

이스라엘이 본래의 소명으로 회복되고 국제적 교회가 그 동반자되는 것은
예슈아의 재림 때 사탄의 최종 패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 14:12, 15 –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